

#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soh@keei.re.kr)

**장 혜 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 (hkchang14252@keei.re.kr)

## 1. 국제 원유가 동향 및 변동요인 분석

### 가. 국제 원유가 동향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What goes up must come down.)”는 말처럼 요즘의 유가 상황이 그러하다. 최근 3개월간의 국제 원유가는 단기적인 급등세를 거친 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월의 국제 원유가는 올해 여름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궜다. 지정학적 불안이 심각한 근래에 OPEC 두 번째 산유국인 이라크에서 종파갈등이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석유공급 불안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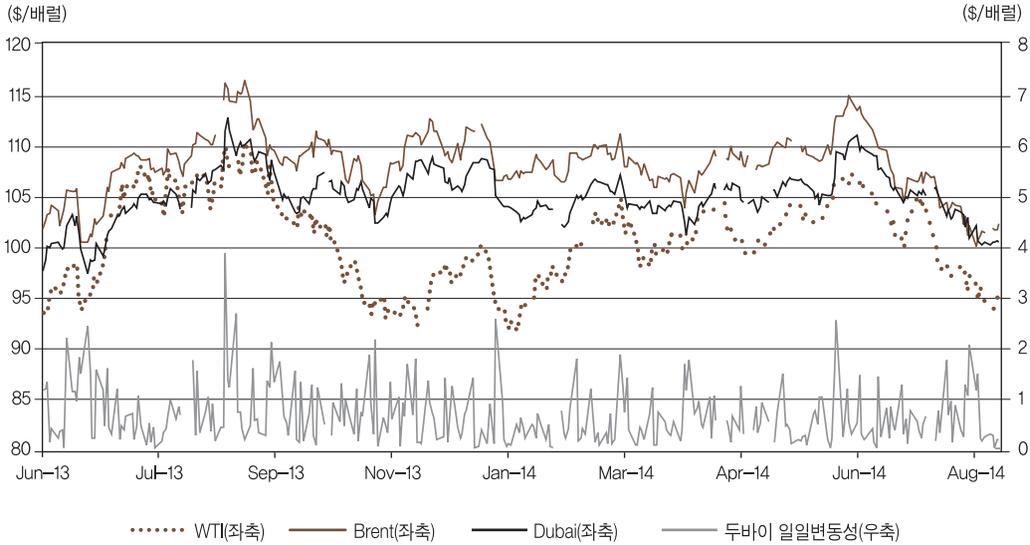
5월까지 두바이 원유 가격은 배럴당 최저 103.59달러에서 최고 106.94로 평균 105.48달러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6월 들어 11일까지 105달러 안팎에서 안정적인 등락을 보이던 원유 가격이 이라크 내전이 발발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해 6월 23일에는 111.23달러로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6월의 평균 가격은 107.93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 해당

하며, 전년 동월 대비 7달러 이상을 상회하였다.

그러다 7월 들어 이라크 내전이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대부분의 원유가 생산 및 수출되는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남부지역으로 교전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국제 원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두바이 원유가는 7월 15일에 104.49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이후에도 7월 말까지 105달러대에서 소폭의 등락세만을 보이며 이라크 내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7월 평균 두바이 원유가는 106.13달러로 전월 보다 2달러 가까이 하락하였다.

8월에는 국제 원유가의 하락세가 보다 가속화되었다. 이라크의 원유생산이 내전에 의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에서의 원유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더해 세계 경제에 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원유 공급 과잉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의 두바이 원유가는 꾸준히 하락해 8월 15일에 배럴당 100.96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대를 나타냈으며, 8월 말까지 꾸준히 100달러 수준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8월 평균 가격도 101.94달러로 전월 보다 5달러 가까이 급락했으며,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 일일 국제 원유가 추이



자료: www.petronet.co.kr

<표 1> 국제 원유가 추이(2012~2014)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12	2013					2014				
		1/4	2/4	3/4	4/4	평균	1/4	2/4	7월	8월	평균
두바이	109.03	108.09	100.76	106.09	106.17	105.25	104.44	106.07	106.13	101.94	104.95
브렌트	111.67	112.62	102.93	109.97	109.30	108.70	108.06	109.72	107.44	102.56	107.92
WTI	94.16	94.33	94.13	105.81	97.65	98.04	98.65	103.03	102.64	96.27	100.53

자료: www.petronet.co.kr

## 나. 유가 변동요인 분석

### 1) 지정학적 공급불안 요인

최근 원유공급과 관련해 석유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는 지정학적 변수는 무엇보다 이라크 내전이 다. 8월 들어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석유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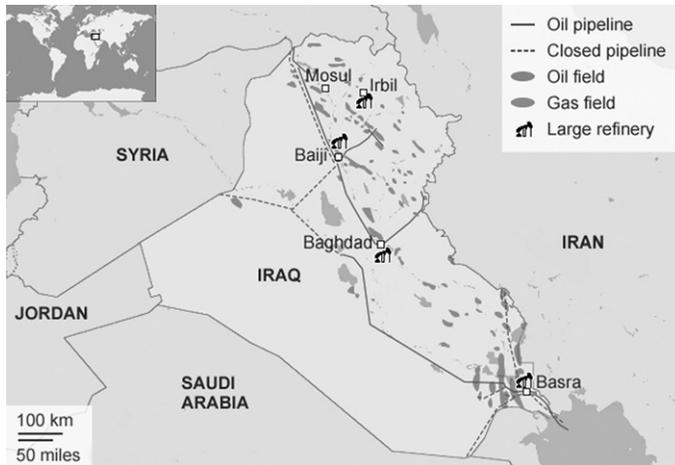
1) 이라크는 2013년부터 OPEC 회원국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가장 빠른 원유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생산증가 잠재량이 있어서도 OPEC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됨.

미치는 영향이 희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가지는 원유공급에서의 위상<sup>2)</sup>을 고려할 때 내전의 장기화는 점진적으로 유가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으며, 교전이 이라크 남부로 번질 경우에도 단기간에 유가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올해 연초부터 수니파 반군(IS2)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Anbar)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다가, 6월 들어 모술(Mosul) 등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수도인 바그다드(Baghdad)로 남하하면서 이라크가 본격적인 내전에 접어들었다. 특히, 모술과 바그다드 중간에 위치한 이라크 최대 정유소인 바이지(Baiji) 정제 시설과 소규모 유전을 점령하면서 원유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정부군

에 가세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의 보안군(Peshmerga)이 적극적인 유전 방어에 나서면서 IS의 남하와 유전 탈취를 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8월 들어 IS가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공세를 집중시키면서, 모술담과 쿠르드 구역 내 소규모 유전을 장악하고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다시 유전 피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특히, 모술담은 이라크 북부의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해 수자원과 전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발시켰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을 극도로 꺼리던 미국은 8월 8일 쿠르드 지역 내 소수민족인 야지디(Yazidi) 족 보호를 명분으로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 제한적인 공습을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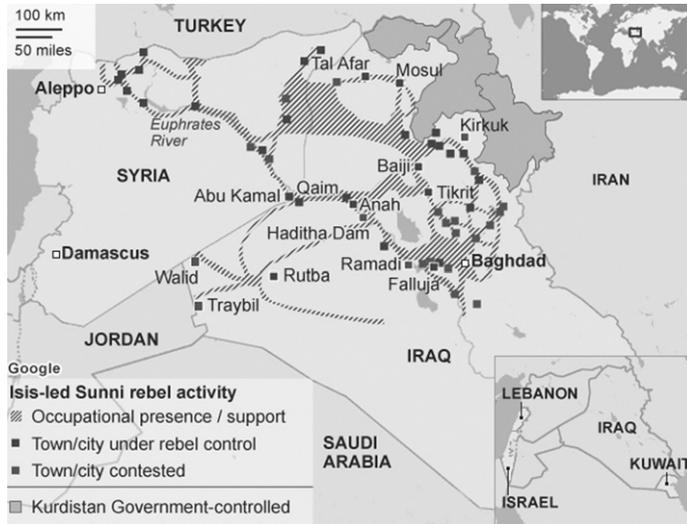
[그림 2] 이라크 석유·가스 매장지 및 관련 인프라의 지역적 분포



자료: World Energy Outlook/IEA

2) 수니파 테러조직인 알카에다(Al-Qaeda)의 분파세력으로 처음에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ISIL)였으나 6월 30일 새로운 이슬람국가를 선언하면서 IS(Islamic State)로 명칭이 변경됨.

[그림 3] IS의 주요 활동 지역



자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news reports

쿠르드 보안군이 모술댐을 다시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석유시장에서 이라크 원유공급 차질 우려를 크게 완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라크 내전이 있기 전까지 석유시장에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을 야기 시킨 것은 이란 핵문제와 리비아 정정 불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 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이란 핵문제의 최근 상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11월 이란과 P5+1<sup>3)</sup> 간 잠정 협상안이 도출된 이후 올해 7월 20일까지를 협상 마감시한으로 하여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분주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보유규모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아라

크(Arak) 중수로(heavy-water reactor) 폐쇄 여부를 두고는 현재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표면적으로 발전용과 의료용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9,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40,000개 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량을 현 보유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양측은 7월 18일에 협상 마감시한을 11월 24일로 4개월 연장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

또한 당초 최종 합의안에 대한 협상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된 시한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

3)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 추가로 2개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마감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란은 추가로 28억 달러의 해외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기존의 자동차 수입, 석유화학 제품 수출, 금 거래 등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유지되는 한편, 석유와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유수출량<sup>4)</sup>은 지난해인 2013년 평균 1.0백만 b/d 수준에서 올해에는 1.4백만b/d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인도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조금씩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과의 핵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까지 이라크 내전과 리비아 정정불안 등으로 원유수급이 다소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 증가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협상 시한이 미루어진 만큼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정상화되는 것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서방의 제재가 보다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어 여전히 석유시장 불안의 잠재요인이라 할 수 있다.

리비아에서는 최근 몇 개월 간 원유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정정불안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리비아의 원유생산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유전과 석유 수출항을 점거한 석유노동자들이나 지역 반군세력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들 석유시설들에 대한 봉쇄가 해제되어 시설 복구 및 일부 유전에서 생산

재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원유생산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동부 석유수출항 4곳, Es Sider, Ras Lanuf, Hariga, Zueitina의 봉쇄가 풀리면서 6월까지 평균 20만b/d 수준에 불과했던 원유생산량이 8월에는 60만b/d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동부 지역 반군은 4월에 1차 협상을 타결하여 원유수출 용량이 낮은 Hariga(11만b/d)와 Zueitina(7만b/d)항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정부에 이양하기로 하였으나, 이들 항구의 시설 피해로 정상 가동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 7월 들어 나머지 Es Sider(34만b/d)와 Ras Lanuf(22만b/d) 항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기로 반군과 합의하고, 서부 유전인 El Sharara 등에서 시위 중인 노동자들의 협상도 타결됨에 따라 리비아의 원유생산이 7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그동안 리비아의 정정불안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리비아는 2011년 9월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치안 체계를 확보하지 못해 민병대들이 난립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까지 심화되었다. 올해 3월 제이단(Ali Zeidan) 총리의 해임<sup>5)</sup>으로 임시총리직에 선임된 알타니(al-Thani)총리는 부임한지 한 달 만에 무장단체의 위협으로 사임했으며, 5월에 제헌의회(GNC)의 투표를 통해 이슬람계 마티크(Ahmed Matiq) 총리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에서 장군을 지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ifter)가 이끄는 반이슬람계 무장조직이 선출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이유로 수도 트

4) IHS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이란 원유거래 제재가 있기 전인 2011년에 이란은 평균 2.3백만b/d의 원유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5) 동부 지역 석유수출항을 점거한 반군이 자금조달을 위해 원유를 실은 유조선출항시켰으며, 리비아 제헌의회(GNC)는 이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리를 경질함.



리폴리(Tripoli)에 진입해 의회 건물에 총격을 가했으며, 의회가 이슬람계 민병대를 불러들이면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리비아 헌법재판소가 이슬람주의자들이 주도한 총리 선출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알타니(al-Thani)가 다시 임시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6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비이슬람계가 승리하면서 새로운 의회와 기존의 제헌의회가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계 민병대와 비이

슬람계 민병대 간 지역장악을 위한 교전이 수도 트리폴리 공항과 리비아 제2 도시인 동부 벵가지(Benghazi)로 확대되면서 리비아의 상황은 이슬람과 비이슬람 세력 간의 내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 간 전화회담이 있었던 6월 12일 이후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천연가스 공급 협상이 결렬되고 우크라이나 정부

〈표 2〉 주요 지정학적 요인(2014년 6월~ 2014년 8월)

기간	변동요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비아, 의회의 신임총리 선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무효 결정(6.9)</li> <li>• 이라크,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북부 도시 모술 점령(6.10)</li> <li>• 우크라이나 포로센코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 전화회담(6.12)</li> <li>• 러시아, 가스프롬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선언(6.15)</li> <li>• 이라크, ISIL의 북부 도시 탈아파르(Tal Afar) 장악(6.16)</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ISIL의 바이지 정유시설 일부 점령(6.25)</li> <li>• 리비아, 중앙정부와 동부지역 반군 간 석유수출항 봉쇄 해제 합의(7.2)</li> <li>•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종료(7.1)</li> <li>•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장세력 간 대규모 교전 발생(7.13~18)</li> <li>• 미국, 러시아 로스네프트와 노바텍에 대한 제재 결정(7.16)</li> <li>•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교전으로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7.17)</li> <li>•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7.17)</li> <li>• 미국과 EU, 러시아에 금융, 무기거래, 에너지기술 관련 추가 제재 결정(7.29)</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수니파 반군(IS) 모술담과 쿠르드 관할지역 일부 장악(8.3)</li> <li>• 러시아, 미국과 EU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 결정(8.6)</li> <li>• 미국, 이라크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 개입 결정(8.7)</li> <li>•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에 병력배치 증강(8.4~15)</li> <li>• 이라크, 말리키(al-Maliki) 총리 퇴진(8.14)</li> <li>• 이라크, 쿠르드 정부 모술담과 관할지역 탈환(8.18)</li> <li>• 러시아, 구호차량 우크라이나 국경 침범(8.23)</li> <li>• 리비아, 이슬람계 민병대 트리폴리 공항 점령(8.23)</li> </ul>

군의 동부 지역 반군에 대한 무력진압이 계속되면서 양국 간 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이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나프토가스(Naftogaz)에 대한 가스공급 가격을 인상<sup>6)</sup>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가스대금 미납 문제와 가스가격을 두고 유럽연합(EU)의 중재 하에 양측이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가스가격을 두고 러시아가 385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한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326달러를 제시하면서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한데 대해 우크라이나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6월 16일 최종협상이 결렬되어 우크라이나로의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단되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지역 반군 간 교전이 7월 들어 격화되었으며, 이 와중에 말레이시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반군에게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것이란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와 기술수출 제한 등이전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미국과 EU, 그리고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수출 중단과 영공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8월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에 군사 배치를 4만 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종합적으로 보면 원유시장을 심리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불안은 최근까지도 그 수위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원유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몇몇 시급한 문제들이 7월 들어 완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세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수급이 공급과잉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국제 원유가가 꾸준히 100달러대를 유지해온 것 역시 이러한 지정학적 위협의 힘이라 할 수 있다.

## 2)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부진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7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은 최근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다가 3개월 만에 전망치가 0.3%p나 깎인 3.4%로 수정되었다. 미국의 상반기 경제가 이상 한파와 폭설 영향으로 주저앉은 영향도 있지만 석유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는 개도국들의 경기둔화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1%p로 크게 하락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아세안 5개국<sup>7)</sup>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0.2%p와 0.4%p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이 각각 0.6%p씩 하락해 최근 개도국 경기 둔화 현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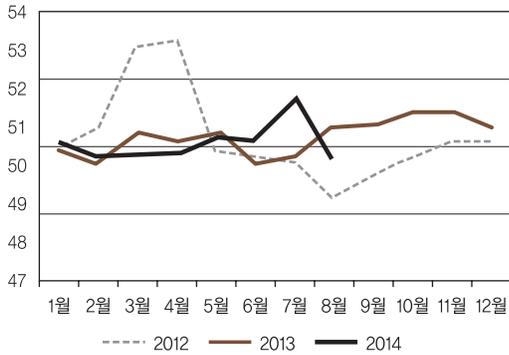
신흥경제국들의 경기둔화는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6)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던 천연가스 가격을 1,000cm당 268.5달러에서 485달러로 약 80% 인상함.

7) ASEAN-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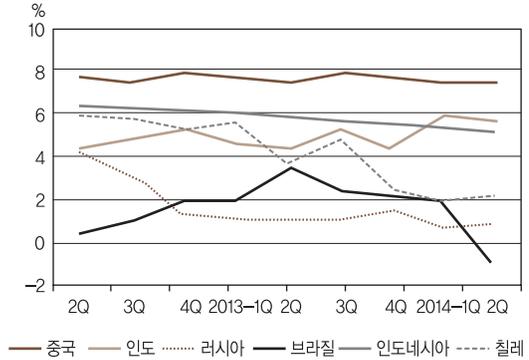


[그림 4] 중국 제조업 PMI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OECD Library

[그림 5] 신흥국 GDP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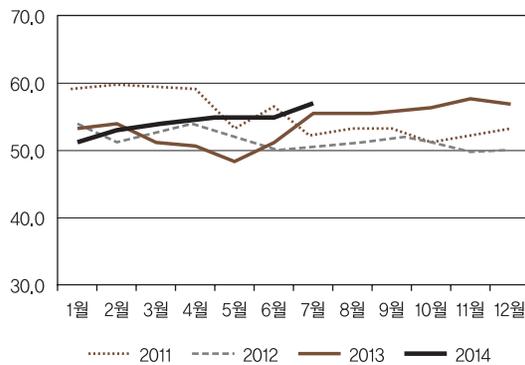


인한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선진국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원보유국들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구조적인 악순환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가 하락하는 금융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둔화 가능성이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인 구매자관리지수(PMI)를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경기위축과 팽창의 경계선인 5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7.4%를 기록

[그림 6] 미국 제조업 PMI 추이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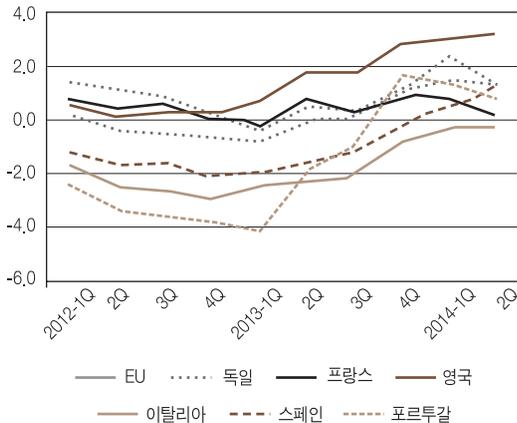
중남미 지역은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투자위축, 그리고 콜롬비아 등에서의 정정불안과 가장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default)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기둔화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올해 1분기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의 2.0%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2분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부과되고 투자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0.8%로 보다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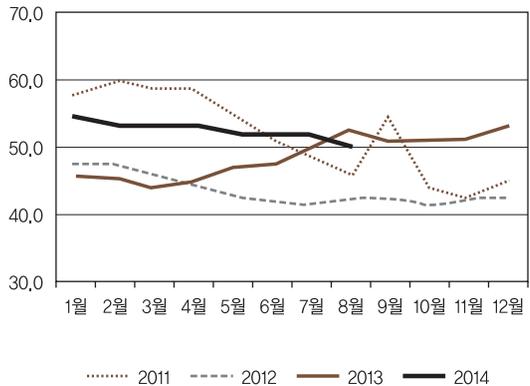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산업생산 증가와 실업률 하락, 그리고 소비개선 등으로 경제회복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으나 EU 경제는 최근 들어 러시아 제재 여파로 둔화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침체의 경계선에 머무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 독일마저 2분기 들어 GDP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산업생산 지표로

[그림 7] EU GDP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추이



자료: OECD Library, Markit

[그림 8] 유로존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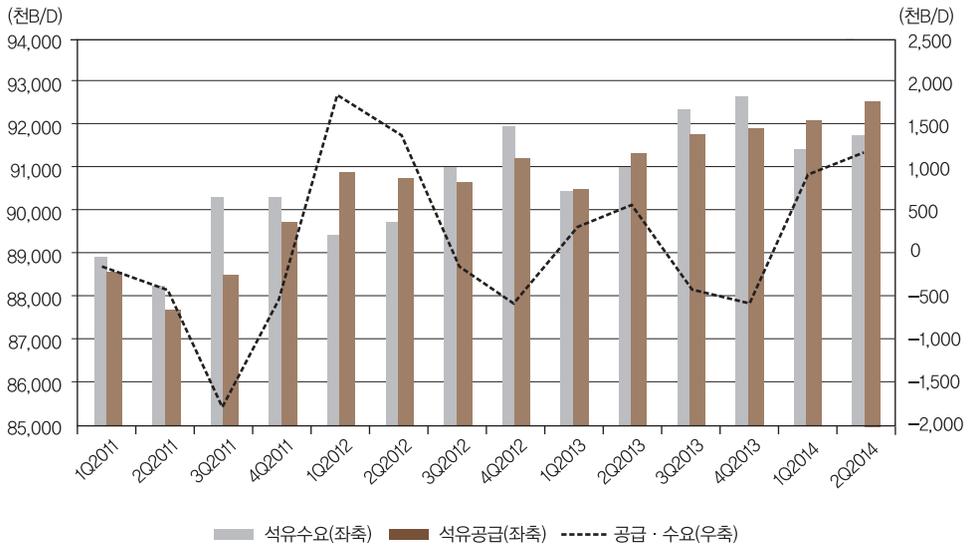
향후 경기 전망을 가늠하게 해주는 유로존의 PMI 역시 5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EU 지역의 경제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올해 세계 경제가 연 초 예측된 것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2분기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폭도 예상보다 급감한 70만b/d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로 인해 세계 석유수급이 1분기에 60만b/d의 공급과잉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는 80만b/d로 확대되면서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가장 근본적인 밑그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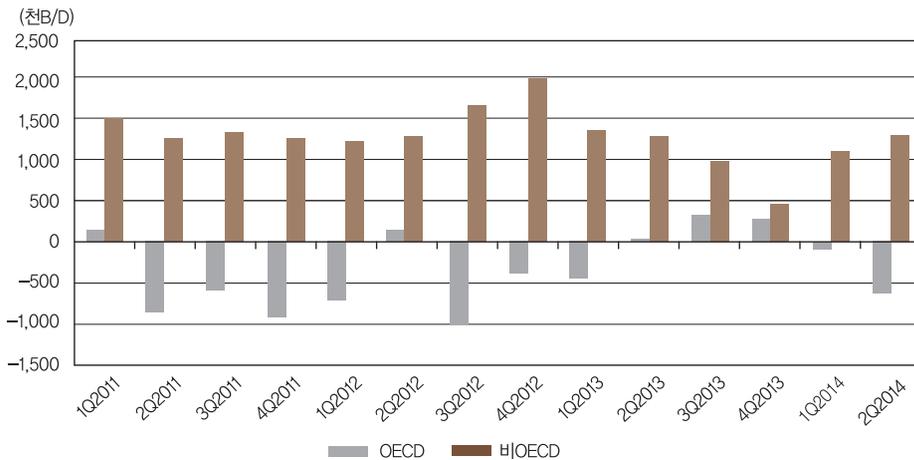


[그림 9] 세계 석유수급 및 초과공급 추이



자료: IEA MODS(2014.5)

[그림 9] 경제권역별 석유수요 분기별 증감(전년 동기대비) 추이



자료: IEA MODS(2014.5)

## 2. 세계 석유수급 동향<sup>8)</sup>

### 가. 세계 석유수요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8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세계석유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69만b/d 증가한 91.74백만b/d 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에 104만b/d, 전년 동기(2013년 2분기)에 130만b/d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선진국의 석유수요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른 결과이다.

경제 권역별로는 OECD가 44.83백만b/d, 비 OECD가 46.91백만b/d의 석유수요를 기록하며 비 OECD가 OECD의 수요를 넘어섰다. OECD 수요는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9만b/d, 2분기에 63만b/d 감소를 보이며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비OECD는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3만b/d와 132만 b/d 증가해 100만b/d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OECD 내에서는 미주지역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 5분기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온 미주지역은 이번 2분기 들어 전년 동기대비 13만b/d 줄어든 23.76백만b/d의 수요를 나타내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산업생산 확장에 따른 경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수요 정체와 석유화학 생산 저하에 따른 LPG 수요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OECD 유럽지역의 석유수요는 계속되는 경제둔화와 공공부채를 해결을 위한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감소량은 1분기에 전년 동

기대비 19만b/d, 2분기에 31만b/d로 확대되었으며 대부분의 감소는 산업 및 수송연료 부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또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만b/d 감소에서 2분기에 도 18만b/d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원인으로는 일본의 석유소비자 소비 세 인상(4월)과 전년보다 낮은 여름철 기온, 그리고 가스·석탄화력 발전설비의 가동 확대로 감소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벙커링(bunkering) 수요 감소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OECD 지역 대부분은 석유수요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2 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34만b/d의 증가를 보이며 1분기의 29만b/d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인 중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6만b/d와 26만b/d 증가했으나, 여전히 석유수요 증가세는 경제성장률 대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생산 부진에 따른 경유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LPG와 휘발유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중동지역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걸프 산유국들이 도로교통 및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석유수요가 1분기 25만b/d 증가에 이어 2분기에도 27만b/d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남미지역의 석유수요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월드컵 개최의 영향으로 1분기 전년 동기대비 21만b/d 증가한데 이

8) 세계 석유수급 동향은 IEA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및 Monthly Oil Data Service의 내용과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됨.



어 2분기에도 20만b/d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구소련 지역의 석유수요는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평균 18만b/d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1분기 16만b/d에서 2분기에는 15만b/d의 증가폭을 기록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세계 석유수요 동향

(단위: 백만b/d)

구분	2013			2014			연간 증감					
							2013			2014		
	1/4	2/4	상반기									
미주	23.74	23.79	23.77	23.86	23.66	23.76	+0.36	+0.21	+0.28	+0.12	-0.13	-0.01
유럽	13.21	13.83	13.52	13.02	13.52	13.27	-0.54	-0.02	-0.28	-0.19	-0.31	-0.25
아·오	8.86	7.83	8.35	8.85	7.65	8.25	-0.24	-0.17	-0.21	-0.02	-0.18	-0.10
OECD계	45.82	45.46	45.64	45.73	44.83	45.28	-0.42	+0.02	-0.20	-0.09	-0.63	-0.36
아시아	11.95	11.90	11.92	12.24	12.24	12.24	+0.35	+0.22	+0.28	+0.29	+0.34	+0.31
중국	9.82	9.99	9.90	9.98	10.25	10.11	+0.37	+0.46	+0.41	+0.16	+0.26	+0.21
중동	7.54	7.93	7.73	7.79	8.20	7.99	+0.35	+0.17	+0.26	+0.25	+0.27	+0.26
남미	6.37	6.60	6.48	6.58	6.80	6.69	+0.18	+0.22	+0.20	+0.21	+0.20	+0.21
구소련	4.43	4.63	4.53	4.59	4.78	4.68	+0.01	+0.08	+0.04	+0.16	+0.15	+0.15
아프리카	3.89	3.90	3.90	3.91	4.00	3.95	+0.14	+0.14	+0.14	+0.02	+0.10	+0.06
유럽	0.62	0.65	0.63	0.65	0.67	0.66	-0.03	0.00	-0.02	+0.03	+0.02	+0.02
비OECD계	44.61	45.59	45.10	45.74	46.91	46.32	+1.37	+1.28	+1.32	+1.13	+1.32	+1.22
전 세계	90.42	91.05	90.73	91.46	91.74	91.60	+0.95	+1.30	+1.12	+1.04	+0.69	+0.87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4.8

#### 나. 세계 석유공급 동향

2014년 상반기 세계 석유공급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3만b/d 증가한 92.10백만b/d에서 2분기에는

125만b/d 증가한 92.56백만b/d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 평균 증가세인 6만b/d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OPEC의 계속되는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주를 중심으로 한 비OPEC의 공

급량 확대가 전체의 증가 추세를 이끌었다.

OPEC의 석유공급<sup>9)</sup>은 지난해 1분기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만b/d 감소한 36.31백만b/d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는 역시 79만b/d 감소한 36.40백만b/d를 나타냈다.

OPEC의 계속되는 공급량 감소는 리비아를 비롯한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회원국들의 정정불안 및 기술적 문제에 따른 원유생산차질 때문이다. 특히, 리비아는 4월 이후 동부지역 일부 석유수출항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치안공백에 따른 무장세력의 활동 및 취업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위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OPEC 회원국 중 가장 큰 105만b/d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가 생산증대를 통해 OPEC 석유공급 감소를 완화시켰다. 먼저, 사우디는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9만b/d, 2분기에 20만b/d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반기 평균 9.47백만b/d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핵협상 잠정 타결로 서방의 제재가 완화된 이란은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1만b/d의 증가를 기록한 것에 이어 2분기에는 15만b/d확대된 2.83백만b/d를 나타냈다. 이라크 또한 계속되는 수니파 반군(ISIL)과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전이 내전 지역에서 벗어난 남부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원유생산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만b/d 증가한데 이어 2분기에도 15만b/d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비OPEC의 석유공급<sup>10)</sup>은 작년 2분기 이후 계속된

증가세의 확장으로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01만b/d 증가한 55.79백만b/d, 2분기에는 205만b/d증가한 56.17백만b/d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증가세를 기록해 비OPEC 공급 증가를 이끌었으며, 그밖에 구소련 및 남미지역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공급이 감소하였다.

미주지역의 공급 확대는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오일 및 오일샌드 개발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의 6월 원유생산은 198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미주지역 석유생산은 1분기 전년 동기대비 137만b/d 증가한데 이어 2분기에는 181만b/d로 그 증가세가 가속화 되었다.

구소련 지역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신규 유전 가동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술문제에 따른 유전 가동차질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체 석유공급은 1분에 전년 동기 대비 15만b/d 증가한데 반해 2분기에는 4만b/d로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남미지역의 석유생산은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0만b/d, 2분기에는 14만b/d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공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유전 보수 종료 및 신규 유전 가동으로 생산량이 10만b/d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수단, 수단, 차드, 그리고 적도기니의 원유공급이 증가하여 상반기 평균 전년 동기대

9) 원유와 NGLs로 구성됨.

10) 원유와 NGLs, 그 밖의 바이오연료와 정제증분(Processing gain)으로 구성됨.



〈표 4〉 세계 석유공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b/d)

구분	2013			2014			연간 증감					
	1/4	2/4	상반기	1/4	2/4	상반기	2013			2014		
							1/4	2/4	상반기	1/4	2/4	상반기
OPEC	36.69	37.19	36.94	36.31	36.40	36.35	-0.80	-0.72	-0.76	-0.38	-0.79	-0.59
원유생산	30.48	30.93	30.70	29.99	30.05	30.02	-0.83	-0.77	-0.80	-0.48	-0.88	-0.68
사우디	8.97	9.28	9.13	9.46	9.48	9.47	-0.63	-0.44	-0.53	+0.49	+0.20	+0.35
이란	2.70	2.68	2.69	2.81	2.83	2.82	-0.67	-0.46	-0.56	+0.11	+0.15	+0.13
이라크	3.03	3.16	3.10	3.29	3.32	3.30	+0.34	+0.24	+0.29	+0.26	+0.15	+0.21
UAE	2.75	2.77	2.76	2.73	2.73	2.73	+0.14	+0.12	+0.13	-0.01	-0.04	-0.03
쿠웨이트	2.53	2.58	2.56	2.53	2.56	2.55	+0.11	+0.13	+0.12	-0.01	-0.01	-0.01
중립지역 <sup>a</sup>	0.52	0.52	0.52	0.52	0.47	0.49	-0.05	-0.04	-0.05	0.00	-0.06	-0.03
카타르	0.74	0.73	0.73	0.72	0.71	0.71	-0.01	-0.02	-0.01	-0.02	-0.02	-0.02
양골라	1.76	1.76	1.76	1.57	1.63	1.60	-0.01	-0.03	-0.02	-0.18	-0.13	-0.16
나이지리아	2.00	1.94	1.97	1.93	1.93	1.93	-0.06	-0.23	-0.15	-0.07	-0.01	-0.04
리비아	1.38	1.31	1.34	0.37	0.23	0.30	+0.08	-0.09	0.00	-1.01	-1.08	-1.05
알제리	1.15	1.15	1.15	1.07	1.14	1.10	-0.01	-0.01	-0.01	-0.09	-0.02	-0.05
에콰도르	0.50	0.51	0.51	0.55	0.55	0.55	0.00	+0.01	+0.01	+0.05	+0.04	+0.05
베네수엘라	2.45	2.55	2.50	2.45	2.48	2.46	-0.07	+0.05	-0.01	0.00	-0.07	-0.03
NGLs	6.21	6.26	6.24	6.32	6.35	6.33	+0.03	+0.05	+0.04	+0.10	+0.09	+0.09
비OPEC	53.78	54.12	53.95	55.79	56.17	55.98	+0.37	+1.28	+0.82	+2.01	+2.05	+2.03
미주	16.79	16.69	16.74	18.15	18.50	18.33	+1.19	+1.20	+1.20	+1.37	+1.81	+1.59
미국	7.11	7.27	7.19	8.05	8.40	8.23	+0.89	+0.99	+0.94	+0.95	+1.13	+1.04
캐나다	2.40	2.32	2.36	2.53	2.60	2.56	+0.15	+0.12	+0.13	+0.14	+0.28	+0.21
유럽	3.38	3.32	3.35	3.50	3.25	3.38	-0.40	-0.27	-0.34	+0.12	-0.07	+0.03
아오	0.45	0.50	0.47	0.49	0.47	0.48	-0.11	-0.08	-0.10	+0.04	-0.03	+0.01
구소련	13.85	13.81	13.83	14.00	13.85	13.92	+0.12	+0.20	+0.16	+0.15	+0.04	+0.10
아시아	7.06	7.04	7.05	6.99	6.94	6.96	-0.04	0.13	0.05	-0.07	-0.10	-0.08
남미	3.78	3.80	3.79	3.87	3.93	3.90	-0.18	-0.03	-0.10	+0.10	+0.14	+0.12
중동	1.34	1.25	1.30	1.30	1.27	1.29	-0.03	-0.15	-0.09	-0.04	+0.02	-0.01
아프리카	1.93	2.00	1.96	2.13	2.08	2.11	-0.17	+0.09	-0.04	+0.21	+0.08	+0.14
바이오연료	1.48	2.02	1.75	1.66	2.19	1.92	-0.07	+0.16	+0.05	+0.18	+0.17	+0.17
총공급량	90.47	91.31	90.89	92.10	92.56	92.33	-0.43	+0.56	+0.06	+1.63	+1.25	+1.44

주: <sup>a</sup> 중립지역 원유생산량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로, 50%는 쿠웨이트로 귀속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4.8

비 14만b/d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유럽은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4만b/d의 증가를 보였던 것에 반해 2분기에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전의 노후화와 유지 보수로 원유생산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7만b/d의 공급 감소를 기록했으며, 그 밖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동지역의 석유공급도 수만b/d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3. 2014년 원유시장 전망

#### 가. 석유수급 여건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다시 증대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석유수요 증가세가 지난해보다도 낮아질 공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IMF가 앞서 언급한 대로 7월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나 하향 조정하였고, IEA도 8월에 올해 세계 석유수요 증가폭을 전월보다 20만b/d 낮춘 100만b/d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 강화와 러시아의 보복조치 등으로 이들 지역의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강대국들 간의 갈등은 투자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흥개도국들의 금융 불안 등을 더욱 가중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올해 세계 경제와 석유수요에 대한 전망치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 석유공급은 중동-북아프리카의 지정학적 불안이 높은 와중에도 미국에서의 빠른 석유생산 증대에 힘입어 실질적인 세계 석유수급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 만 해상에서의 생산량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인 6월에는 미국 정부가 초경질원유인 컨덴세이트에 대한 수출을 일부<sup>11)</sup> 허용하면서, 그동안 미국 내 과일 공급되고 있는 경질원유가 세계 시장에 점진적으로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역시 세계 석유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OPEC 산유국인 리비아에서의 원유생산이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미국의 이라크 내전 개입 및 유럽과 아랍연맹 등이 IS의 무장활동에 대응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라크의 원유생산 차질 우려가 완화된 것 역시 유가 하락에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협상, 리비아 정정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지정학적 문제는 여전히 석유공급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란 핵문제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로 겪고 있는 경제난을 고려할 때 올해 연말까지 서방과 이란 간 긍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변국들이 이란이 우라늄농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외교적인 해결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강경파들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협상 막판까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이란의 원유수출 제재는 연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11) 미국 상무부는 6월 24일 증류시설을 통한 가공을 거친 컨덴세이트(plant condensate)에 한해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보고 수출을 허용함.



리비아는 치안공백과 정치적 불신으로 정국불안이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 간 내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UAE와 이집트가 리비아 내 비이슬람계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카타르가 이슬람계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종파 간 교전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2개월 간 나타난 리비아의 원유생산량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석유시장에서 공급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9월 들어 러시아가 동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이러한 가스공급량 축소는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제재에 맞서 에너지공급 중단을 경고하고 있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나. 국제 원유가 전망

9월 들어 국제 원유가는 95달러 수준까지 하락해 브렌트나 두바이 원유 모두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북미지역의 석유공급이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OPEC 원유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도 둔화되는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국들의 IS 진압을 위한 공조 가능성으로 이라크의 원유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완

〈표 5〉 2014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기준안)

(단위: 백만b/d)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e	4/4e	연간e
OECD 수요	45.9	45.8	45.5	46.2	46.5	46.0	45.7	44.8	46.1	46.5	45.8
비OECD 수요	44.6	44.6	45.6	46.2	46.2	45.6	45.7	46.9	47.0	47.1	46.7
세계 수요	90.6	90.4	91.0	92.3	92.7	91.6	91.5	91.7	93.1	93.6	92.5
비OPEC 공급	53.3	53.8	54.1	54.9	55.9	54.7	55.8	56.2	56.5	57.1	56.4
OPEC 공급	37.5	36.7	37.2	36.9	36.1	36.7	36.3	36.4	36.9	36.8	36.6
원유	31.3	30.5	30.9	30.6	29.8	30.5	30.0	30.1	30.4	30.3	30.2
NGLs	6.2	6.2	6.3	6.3	6.3	6.3	6.3	6.3	6.5	6.5	6.4
대OPEC 원유수요	31.0	30.4	30.7	31.2	30.6	30.7	29.4	29.2	30.0	30.0	29.7
세계 공급	90.9	90.5	91.3	91.8	91.9	91.4	92.1	92.6	93.4	93.8	93.0
재고증감	0.3	0.1	0.3	-0.5	-0.7	-0.2	0.6	0.8	0.3	0.2	0.5

주: e 전망치

자료: 실적치-IEA Oil Market Report, 2014.8, 전망치-에너지경제연구원

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하락세는 이러한 수급관련 요인 외에도 달러화가 8월 말부터 빠른 강세로 돌아선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9월 5일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데 이어 미국에서는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로화 대비 달러환율이 3% 가까이 하락(가치상승)했다. 이로 인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의 매매가치 역시 높아진 것이 유가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상황도 전반적인 석유수급 환경이나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근의 유가 약세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반작용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우디가 1천만b/d 이상의 원유를 생산했기 때문에 감산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럽의 석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4분기 들어 세계 석유공급 과잉현상이 축소되면서 국제 원유가는 최근 수준이 상당한 저점에 와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수준보다는 상승한 100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이달석 · 오세신, 2014년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4-

02, 2014.7

www.petronet.co.kr

www.bok.or.kr

#### 〈외국 문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2014.6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4.8.12

\_\_\_\_\_, Oil Market Report, 2014.8.12

\_\_\_\_\_, Monthly Oil Data Service

IHS, CERA Alert, Talking with Tehran, 2013.11.25

IHS Energy, "Iran Nuclear Talks Extended to November," Energy Alert, 2014.7.21

\_\_\_\_\_, "Why the United States Needs to Lift the Ban on Crude Oil Exports," Energy Alert, 2014.6.26

\_\_\_\_\_, "Iraq Crisis to Keep Pressure on Global Oil Prices," Energy," Market Briefing, 2014.6.25

\_\_\_\_\_, "Iraqi Intensifying Turmoil Poses Another Threat to Supply in Tight Global Oil Market," Energy Alert, 2014.6.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7

www.eia.doe.gov(미국 에너지정보청)

www.ism.ws(미국 공급관리자협회)

www.markit.com

www.oecd-library.org

www.stats.gov.cn(중국 국가통계국)